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8권 제3호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10. Vol. 18, No. 3

일본의 정신과 작업치료의 역사와 현재

야마네 히로시

쿄토대학교 의학대학원 인간건강과학과 교수 일본작업치료사협회 부회장

국문초록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정신보건 역사와 작업치료의 현재, 작업치료사 양성 교육과 그 외에 사안들에 관하여 간략 히 소개하였다. 한국도 산업화에 따른 직종 및 구조의 변화, 도시화 등 사회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족 제 도의 변화와 더불어 정신질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신보건 체제의 구조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정신보건영역은 일본의 생 활치료요법이 시행되었던 시대, 작업치료사가 정신보건영역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을 때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일본에서 경험한 과정들을 기초 삼아 본 연구가 한국의 정신과 작업치료의 체계적 구축과 발전에 다소의 기 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이다.

주제어: 역사, 일본, 정신과 작업치료

Ⅰ. 서 론

일본에서 작업과 활동을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 작한지 100년, 공식적으로 작업치료사가 배출된 지는 40 여 년이 되었다. 작업치료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활동을 치료의 매개체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환자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닌 환자 주변의 환경에서의 생 활, 일, 여가, 직업, 생산 활동과 같은 일상적 문제들을 중 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초창기 작업치료의 목적은 병 을 "고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치료한다"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이후 "병을 극복한다"로 변화되어 환 자가 자신의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2009년 3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작업치 료사가 인정된 한국의 경우도 일본의 정신과 작업치료의 역사와 비슷한 상황이며 또한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거쳐 현재 일본의 정신보 건의료복지는 "입원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작업치료사협 회와의 학술 연계를 통해 일본의 정신과 작업치료 역사와 현재 모습, 그리고 작업치료사 양성 교육 및 기타 그 밖의 것들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Ⅱ. 본 론

1. 정신과 작업치료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정신과 작업치료 분야는 정신보건의료복지의 발달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보건의료복지의 법과 제도의 변천 과정은 표1에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 작업치료의 시작

작업과 활동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어 치료적 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901년 영국 유학을 마치고

교신저자: 야마네 히로시(hirobo@hs.med.kyoto-u.ac.jp)

| 접수일: 2010. 04. 30 | | 심사일: 2010. 05. 24 || 게재승인일: 2010. 08. 14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Psychiatric Occupational Therapy in Japan

Hiroshi Yamane, Ph.D., O.T.R

Department of Human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of Medicine, Kyoto University Japanes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Vice Presid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briefly provide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mental health, the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therapy, and training curriculum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Japan. With the marked change in the types of occupation, increasing urbanization, and rapid change in the socioeconomic structure resulting from industrialization, Korea is witnessing transformation in the family system in addition t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Such drastic change mandates a significant structural change in the mental health system in Korea. This period in Korea, where occupational therapists being only just recently allowed to participate and intervene in psychiatric hospitals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activities is reminiscent of the time in Japan when occupational therapists began to serve in the mental health field during a period when daily living therapy was being offered. It is our hope that the experiences that we underwent in Japan may be able to assist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psychiatric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Key words: History, Japan, Psychiatric Occupational Therapy

한국형 발달프로파일-III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차유진*, 김세연**, 우희순***, 정희승****, 김은주*****, 최유임******, 박수현******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한국형 발달프로파일→Ⅲ(Korean-Developmental Profile→Ⅲ) 국내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기 위한 예비연구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한글로 문항을 번역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K→DP→Ⅲ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방법 : 아동전문가들의 번역과 관련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한국형 발달프로파일—III를 개발하였으며, 2009 년 11월 5일부터 동년 11월 10일까지 두 개 도시(서울, 원주)에서 3세부터 5세까지 정상발달을 보이는 아동 49명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국형 발달프로파일—III의 타당도 비교에는 한국판 덴버발달 선별검사 II (K—DDST—II)와 한국판 적응행동척도(K—ABS)를 사용하였다.

결과 : 평가결과 한국형 발달프로파일→Ⅲ의 신뢰도는 .86~.90로 조사되었으며, K→DDST→Ⅱ와 K→ABS와의 항목별 상관관계에서도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 타당도가 높은 평가도구임을 확인하였다.

결론 : 본 예비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 발달프로파일→Ⅲ는 아동의 발달을 평가하는데 있어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평가도구임을 검증 하였다.

주제어: 발달프로파일-Ⅲ, 신뢰도, 타당도, 표준화

Ⅰ. 서 론

아동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발달 검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발달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손원경과 남미경, 2003). 발달검사는 개인의 발달 상태를 정상아동과 비교하여 발달지연 여부를 판별하고 나아가 미래

의 성취를 예측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기에 발달 상태를 선별하고 진단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면 발육부진이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발달 및 행동상의 문제에 관한 진단이 거듭 강조되는 추세이다(윤치연, 2004; 황해익과 정해영, 1996).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외국의 발달 검사를 국 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교신저자 : 정희승 (bearfox511@kwu.ac.kr)

| | 접수일: 2010. 04. 30 | | 심사일: 2010. 05. 24

Pilot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Developmental Profile III (K-DPIII)

Cha, Yu-Jin*, M.P.H., O.T., Kim, Se-Yun**, M.A., O.T.
Woo, Hee-Soon***, M.A., O.T., Jung, Hee-Seung****, M.S., O.T.
Kim, Eun-Joo*****, M.P.H., O.T., Choi, Yoo-Im******, M.S., O.T.
Park, Soo-Hyon*******, Ph. D.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 Welfare, Woosuk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oso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oso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wangju Women's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College of Alternative Medicine, Jeonju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 Welfare, Howon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evelopmental Profile—III(K-DPIII), and to modify its items in accordance with Korean culture.

Methods: Following a translation process by a professional translator, K-DP III was administered to parents of 49 normal children (ranging from 3 to 5 years in age). The reliability was tested via internal consistency (N=49). Its concurrent validity was examined by administering K-DDSTII and K-ABS.

Results: The results showed high internal consistency (.86 to .90) and concurrent validity (.39 to .63). In most K-DPIII scales, the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cales ranged from .54 to .77 and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K-DPIII is a reliable and valid test in evaluat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

Key words: Korean developmental profile-III, Reliability, Standardization, Validity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에 관한 고찰

김희정*, 이기효**, 이재신***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체계를 고찰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재활서비스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 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 증가 및 경제 위기로 인해 출산 감소가 가속화되어 노인 인구의 증가율 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료 비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만성질환에 적합한 재가·지역 사회서비스가 급성장하여 다양한 요양시설, 재가·지역사 회서비스의 개발되어 장기요양환자의 병원입원이 억제되고 전문요양병상, 단기입소병상, 낮 병원, 재활치료센터, 방문서비스 등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주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김은영과 전경자, 2003; 최혜숙, 2007).

이 중 방문의료는 만성질환 또는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급성치료를 종료한 이후 병세는 안정되었으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발생한 노인에게 재가서비스 를 제공하여 신체적 능력 향상 및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능

교신저자 : 김희정 (khj2335@kaya.ac.kr) *이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임. | 접수일: 2010. 04. 30 | 심사일: 2010. 05. 24

Introduction of Home Rehabilitation Servi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Kim Hee-Jung*, Ph.D., O.T., Lee Key-Hyo**, Ph.D., Lee Jae-Shin***,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basis for an effective introduction of basic information on Home Rehabilitation Services (HR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t attempts to ascertain the situations and problems of a Home Health Project in Korea through references, and to research an introduction of HRS through a review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t also reviews the general issue of HRS in other countries and the associated-laws for a proper introduction of such services.

As a result of a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necessity of HRS by experts is magnified in home health care services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t an interim evaluation. Various HRSs have been carried out under government-led programs in most major countries, whereas there has been a lack of participation of rehabilitation therapists in Korea due to the absence of a proper legal ground. This study implies that both patients suffering from chronic illness and elderly people need an HRS and have a strong intention to use such services. To provide various HRSs to meet patient needs,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and systemic grounds for the introduction of an HR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do this, we must develop various programs and pilot projects with health professionals involved in Community Health Services. Also, various studies are expected to investigate the demand for an HRS, and to spread public opinion regarding its introduction in Korea.

Key words: Home rehabilitation service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아동 및 청소년의 놀이와 여가 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장기연, 류안나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작업수행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놀이 및 여가 활동 참여도를 얻기 위해 CAPE를 도입 적용한 후 일부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외 활동(놀이 및 여가 활동)의 참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방법 : CAPE를 한글판으로 번역 검증한 후, 검증된 CAPE를 일부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8-17세의 초·중·고등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여 시행한 후 놀이 및 여가 활동 참여의 다양성, 강도, 환경적 요인 및 흥미, 성별 및 연령 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대상자들은 55개의 활동 중 평균 24.83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친구들과 놀기, 컴퓨터 비디오 게임, 전화 통화하기, 집에서 TV및 영화보기, 음악 감상하기 순 이었다. 활동참여의 강도는 4.22점으로 나왔으며 레크레이션 활동과 사회적 활동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활동강도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활동의 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였다. 활동의 흥미는 평균 3.27점으로 레크레이션 활동과 사회적 활동에서는 여학생의 활동 흥미가, 그 외의 형식적 활동, 신체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의 활동 흥미가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항목에서 혼자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순이었으며, 활동에 참여 하는 장소는 집, 지역사회 내, 학교 순이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빈도가 감소하였으며, 친구와 함께 활동의 빈도는 증가 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에서의 활동 참여의 빈도가 감소하는 대신, 이웃집, 학교와 지역사회 외에서의 활동의 참여 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한글판 CAPE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놀이 및 여가참여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놀이 및 여가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임상적으로 치료개입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주제어: 놀이, 아동, 여가, 참여, 청소년, CAPE

교신저자: 장기연 (kiyeon@wsu.ac.kr)

Ⅰ. 서 론

아동의 최초 작업은 놀이이며, 성장해가며 청소년기에

이르러 놀이의 영역이 여가로 확대되어 간다. 작업치료 영역에서 놀이와 여가활동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목적과 의미를 가진 중요하고 일차적인 작업이며, 역사적으로 의미

|| 접수일: 2010. 04. 30 || 심사일: 2010. 05. 24

Study of Play and Leisure Participation (Out of School Activities)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Chang, Ki-Yeon, Ph.D., O.T., Ryu, An-Na, B.H.Cs.,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oso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used to verify the Korean version of CAPE (the Children's Assessment of Participation and Enjoyment), and to identify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in terms of play and leisure.

Methods: A total of 231 participants varying in age from 8 to 17 completed a CAPE report by themselves. The participation factors (diversity, intensity, with whom and where the participation occurs, and level of enjoyment), along with sex and age variables, we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participants took part in an average of 24.83 activities out of 55 available. In most activities, the boys showed higher intensity rates than the girls, and the younger participants showed greater intensity than the older ones. The girls' levels of enjoyment of recreation and social activitie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boys, but the boys' levels of enjoyment of informal and physical activities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girls. Most participants partook in activities alone, followed by family, other relatives, friends, and others. The younger children showed the greatest levels of participation when they were with their families at home, while the older ones showed the greatest levels of participation while they were with their friends at school and outside their community.

Conclusion: This paper showed that CAPE is a useful tool to measure the multiple dimensions of play and leisure participation in children, and is a good information provider for occupational therapists who intervene in such activities.

Key words: CAPE, Child, Leisure, Participation, Play, Youth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에 기반을 둔 학교작업치료 실태조사

김세연*, 김지연**

*우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반 학교작업치료사의 업무, 작업치료 대상자, 작업치료의 목표와 사용되는 이론의 틀, 전문가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발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국내 학교작업치료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반 학교작업치료의 나아갈 바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 2010년 1월 4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전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를 전공한 치료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한 총 5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 연구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 · 경기에 가장 많이 종사하며, 특수학급교실에서 가장 빈번히 작업치료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특정 운동 또는 감각 기술'에 초점을 두는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별화교육계획 회의에는 '1학기에 1회', '참석하지 않음'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96.0%가 이론의 틀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감각통합 이론의 틀을 적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이유로 '대상아동에게 적합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발활동은 저널 또는 전공서적 위기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경비와 개인휴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에 기반을 둔 최선의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방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기반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 학교 기반 작업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교육기반 학교작업치료, 작업치료사, 특수교육지원센터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들의 권리의식 향상과도 관련되어 있다(송영준, 김영태, 육주혜와 이병인, 2007).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기반 작업

치료의 전달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 확대배치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치료교육 담당교원 배치 등 치료교육 분야에 새로운 발전이 시작되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과의 개념적 혼란을 발생시켰던 치료교육이 아닌 의료·재활적 성격을 분명히 가진 치료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치료지원을 도입하게 되었다(송영준 등, 2007).

교신저자: 김지연 (jiyoun@wsu.ac.kr) | 접수일: 2010. 04. 30 | 심사일: 2010. 05. 24

A Survey on the Status of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and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Kim, Se-Yun, M.A., O.T.*, Kim Ji-Youn, M.A.,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and Wellbeing, Woosuk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osong University

Objectiv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on the status of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and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and to present a way to progress.

Methods: Study data were provided by 50 therapy supporting service professionals who is working in school and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through mail, e-mail from January 4th to March 10th in 2010.

Results: The most of service professional was working at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in Seoul and Gyeounggi; most frequently served elementary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and delivered services most often in special class. Practitioners spent most of their work week providing direct services and most frequently participated in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meeting once a semester or not participated. Goals were targeted students' sensory or motor impairments. 9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using a frame of reference; sensory integration theory were used most often; suited the population of children was reason for using frame of reference.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and resource was reported by practitioners was journal/books, personal money and unpaid release time most frequently.

Conclusion: Policy support and improvements are necessary for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 to best practice. It is also need a regular education, seminar and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related study to consolidate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role and professionalism.

Key words: Occupational therapist, School based occupational therapy,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발달장애아동의 질환별 감각처리능력의 비교

김진경, 이택영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발달장애아동의 질환별 감각처리능력을 파악하여 감각통합치료에 방향성을 제시 하고, 작업치료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발달장애아동의 질환별 감각처리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윤정 등(2007)이 한국어로 번역한 Sensory Profile을 사용 하였다. 연구대상은 발달장애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방문 및 우편 배부를 하여, 총 32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일반적 특성과 감각처리능력의 감각영역 14항목과 감각요인 9항목은 빈도 분석하였으며, 감각통합처리기술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후검정은 Scheffe 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 감각영역에서 G영역(지구력/근긴장도 조절)이 네 집단(ADHD아동, 자폐아동, 정신지체아동, 발달지연 아동)에서 모두 문제범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아동의 질환별 감각요인 비교에서 요인1(감각추구)과 요인2(정서 반응)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결론 : 발달장애아동은 역치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4개의 감각모델(감각등록저하, 감각민감성, 감각회피, 감각 찾기) 중 감각등록저하에 공통적인 문제점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상아동과의 연구를 통해서 발달장애아동과의 차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감각처리능력, 발달장애, Sensory Profile

Ⅰ. 서 론

발달장애는 현재 단일한 정의는 없으나 대동작/소동작, 언어, 인지, 개인/사회성, 일상생활활동과 같은 발달영역에서 2개 영역이상 심각한 지연을 보이는 만성장애로 볼수 있다(김종구, 2005; Shevell et al., 2003). 여기서 심각한 지연이란 동일 연령군의 규준참조검사에서 기능수준이평균보다 2 이상의 표준편차를 보이거나, 교정 연령에서최하 25% 동등연령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김지선, 김대현, 고대영, 강연경과 한윤교, 2005). 또한 DSM-IV-TR(APA, 2000)에서는 정신지체, 학습장애, 운동기

술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 등을 포함한 광범위성 발달 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s: 이하 ADHD), 유아기 섭식 배설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를 발달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아동들은 주의력 결핍, 반복적 상동행위, 특정자극에 대한 과민 혹은 과소반응 등의 행동장애를 나타내는데, 그 원인을 감각조절장애에 의한 문제에서 찾고 있다(유은영과 이지연, 2005).

감각조절장애는 다양한 주변 환경과 신체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에 맞게 선별하고 조절하는 능력의 장애를 말하는 데 그것은 감각통합

교신저자: 이택영 (otlty@hanseo.ac.kr) *본 논문은 한서대학교 교내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 접수일: 2010. 04. 30 || 심사일: 2010. 05. 24 || 게재승인일: 2010. 08. 14

A Comparison of Sensory Processing Skills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Jin-Kyung, Ph.D., O.T., Lee-Taek-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ascertain the sensory processing skills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Ds) for the creation of a sensory integration theory,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constructing an occupational therapy strategy.

Methods: A Sensory Profile translated into Korean by Lim et al. (2007) was used to assess the sensory processing skills in children with DD. Caregivers for children with DD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and the total data from 32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or the analysis. A frequency analysis was used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14 items in the sensory section and 9 sensory factors in terms of sensory processing skills. The sensory integration processing skills of the children were analyzed using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Scheffe post-hoc test.

Results: Sensory Processing related to section G (endurance/tone) was revealed to have a defined difference in four groups. A sensory factor comparis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ctor 1 (sensory seeking) and factor 2 (emotional reaction) (p<.01).

Conclusion: Sensory processing related to endurance/tone is associated with low endurance/tone and poor registration. This indicates higher thresholds in a subject's sensory processing capacity.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cut-off point (sensory factor) for discerning the difference between non-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Key Words: Developmental disability, Sensory processing, Sensory profile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보조도구 사용실태 및 부모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정지심*, 장문영**, 황기철***, 김경미**

*홋익재활병원 작업치료실 **이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보조도구 사용실태와 아동의 장애유형과 자세보조도구의 종류에 따른 부모 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2009년 7월 27일부터 동년 10월 9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뇌성마비 아동의 부 모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Que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 (QUEST) 2.0의 항목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결과 : 뇌성마비 아동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세보조도구는 휠체어, 자세조절용 의자, 피 더 시트, 프론 스탠드의 순이었다. 휠체어 사용 아동 중 75%의 아동들은 자세지지를 위한 이너(inner)를 사용하였다. 뇌성마비 아동의 장 애유형별 자세보조도구 기기 만족도에서는 내구성과 편안함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서비스의 만 족도에서는 수리 및 유지관리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자세보조도구 종류별 만족도에서는 내구성 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서비스의 만족도에서는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기기 영역에서 편안함 항목은 아동의 장애 유형과 자세보조도구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었다.

결론 : 뇌성마비 아동들의 자세보조도구 사용실태와 사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자세보조도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적합한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세보조도구의 사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세보조도구와 아동, 환경 간에 적합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형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뇌성마비, 만족도, 자세보조도구

⊺. 서 론

뇌성마비는 미성숙한 뇌의 병변으로 인해 운동과 자세 조절에 장애를 일으키는 비진행성 질환이다(Hong. 2007). 뇌성마비 아동은 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 운동기능 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McDonald, 1987), 발생빈도

는 국외의 경우 전체 출생아 1,000명 중 1~2.5명이며 (Colver et al., 2000; Krigger, 2006), 국내의 경우 1,000 명 중 2.7명으로 보고된다(조미애, 박창일, 박은숙, 김성원 과 김용욱, 1997). 뇌성마비의 유형은 마비 부위에 따라 사지마비(quadriplegia), 양마비(diplegia), 편마비 (hemiplegia)로, 자세긴장도에 따라 경직형(spastic), 무

교신저자: 장문영 (mvinii@naver.com)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임.

[] 접수일: 2010. 04. 30 [] 심사일: 2010. 05. 24 II 게재승인일: 2010. 08. 14

Research on the State of Adaptive Seating Devices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Parent Satisfaction

Jeong, Ji-Sim*, M.S., O.T., Chang, Moon-Young**, Ph.D., O.T., Hwang, Ki-Cheol***, Ph.D., O.T., Kim, Kyeoung-Mi**, Ph.D., O.T.

*Hong-Ik Rehabilitation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Objective: The present research set out to identify the current use of adaptive seating devices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CP), and the level of parental satisfaction considering the types of disability and use adaptability of their children.

Methods: This investigation was distributed to parents of children with CP in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from July 27th to October 9th, 2009. The questionnaire adapted the items of the Que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 (QUEST 2.0), which were redesigned for this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the most commonly used adaptive seating devices were wheelchairs, followed by position adjustable chairs, feeder seats, and prone stands. 75 percent of wheelchair—using children used an inner cushion to maintain their body position. In terms of satisfaction levels in adaptive seating devices based on the child's type of cerebral palsy, there was a significant variation between durability and comfort (p<.05). In terms of services, there was a significant variation between repair and service (p<0.05). In terms of the types of adaptive seating devices, except for durability, every category had significant variation (p<.05). In terms of service satisfaction levels, except for a service delivery program, every category had significant variation. Concerning the comfort of the device in question, the outcomes varied both by disability type and adaptive seating device type.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not only suggested problems through research on the current use of adaptive seating devices, but also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arental satisfaction based on the child's type of CP disability and the adaptive seating device used. Therefor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s the basic data for a service delivery system of adaptive seating devices, by which CP children may appropriately utilize such devices. In order to improve parental satisfaction regarding adaptive seating device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develop and apply Korean—style evaluative tools for measuring the suitability between adaptive seating devices, children with CP, and their environment.

Key words: Adaptive seating device, Cerebral palsy, Satisfaction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8권 제3호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10. Vol. 18, No. 3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n Activity Card Sort) 개발

이상헌*, 유은영**, 정민예**, 박수현**, 이재신***, 이택영****

*순천햣대학교 의료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건양대학교 의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한서대학교 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활동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n Activity Card Sort)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개발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문헌 조사에서 국내 노인들이 참여하는 167개 의 활동 목록을 수집하였고, 2단계에서 1차 패널회의를 실시하여 167개 항목 중 의미가 중복되거나 한국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들을 삭제하여 1차 활동 목록을 선별하였다. 3단계에서는 5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에서 선별 된 활동들의 수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4단계에서는 2차 패널회의를 통해 3단계 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참여도가 높은 최종 활동 목록을 선정하였다. 5단계 에서 선정된 67개 활동들의 영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계적 군집 분석으로 설문 결 과를 분석하였다. 3차 패널회의에서 일부 활동을 재분류하여 활동 영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결과 :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는 세 개 영역 67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수단적 활동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여가 활동이 18개, 사회 활동이 16개 였다.

결론 : 본 연구에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가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작업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최초의 도구로서 임 상에서 작업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노인, 수단적 활동, 작업치료, 평가 개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활동 참여

⊺. 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 과정을 거치 면서 의료 기술 및 건강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에 따 라 노인들의 기대 수명(life expectancy)이 증가하고 있다 (김제안과 채종훈, 2005; 노영섭, 1997).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에 약 9%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 하였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8%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평균수명도 80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된다(통계청, 2007), 향후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 가 예상되면서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 대응 체계 구축, 고령자 집단 보호 정책 수립, 노인 고용 확대, 노인의 사회적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김미령, 2008, 설민신, 2008; 전정태, 2000).

교신저자: 유은영 (splash@yonsei.ac.kr) □ 접수일: 2010. 07. 30 □ 심사일: 2010. 08. 17

Development of the Korean Activity Card Sort

Lee, Sang-Heon*, Ph.D., O.T., Yoo, Eun-Young**, Ph.D., O.T., Jung, Min-Ye**, Ph.D., O.T., Park, Soo-Hyun**, Ph.D. Lee, Jae-Shin***, Ph.D., O.T., Lee, Taek-Young****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Medical Sciences, Soonchungh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s, Yonsei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Medical Sciences,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ivision of Health Science, Hanseo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version of the Activity Card Sort (K-ACS)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changes in activity participation levels in elderly Koreans.

Methods: Basic activities were collected by reviewing literatures and selected through first panel discussion. Selected activities were categorized based on degree of engagement of healthy adults 55 years and older after survey. Activities to compose the K-ACS were selected in a second panel discussion. In this panel discussion, the mean cut off score, averaged activity participation level, was decided to be 1.40. To categorize selected activities, second survey was performed and survey results was analyzed with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In third panel discussion, some activities recategorized.

Results: The total number of K-ACS's activities was 67 and categorized by three domains: instrumental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The number of leisure activities were 33, leisure activities 18, and social activities 16.

Conclusion: K-ACS was developed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clinical utility and value of this test in the evaluation of occupational performance.

Key words: Activity engagement, Elderly, Instrumental Activities, Korean Activity Card Sort, Occupational Therapy, Tool development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8권 제3호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10. Vol. 18, No. 3

뫼비우스 증후군에 대한 작업치료학적 평가와 중재

하미영*, 이택영**, 임성오***

*河언어신체발달교육원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작업치료실

국문초록

서론 : 뫼비우스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비진행성 양측성 또는 일측성의 안면신경마비와 수평방향의 안구 운동장애(외전신경마비)가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며, 이밖에도 다발성 뇌신경장애, 심혈관기형, 지능장애, 근육 및 골격계 기형과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본론 : 본 증례 아동은 2세 4개월된 남아로 전반적인 구토와 수유장애, 작은 턱, 뫼비우스 증후군에 의한 삼킴장애 진단을 받고, 정확한 발달 상태를 알아보고자 발달 평가 및 삼킴장애 검사가 의뢰되었다. 아동은 뫼비우스 증후군 에서 보이는 안검하수와 윗입술이 올라가 입을 벌리고 있었으며, 귀가 아래에 위치하고 표정이 없는 안면형태를 하고 있었다. 평가결과, 베일리 발달검사 II (Bav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에서 정신발달지수(mental development index) 와 운동발달지수(psychomotor development index)에서 심한 발달지연 범위에 속하였다. 또 한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quence language scale for infants) 결과 심한 언어발달지체를 보였으며, 비디오 형 광 투시법(videofluoroscopy) 연하검사결과 연한 유동식(thin liquid) 검사에서 사래 걸릭(aspiration)이 관찰되었 고, 삼킴 반사(swallowing reflex)의 지연이 나타났다.

결론 :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그 증례가 발표된 적이 없어. 이에 저자들은 뫼비우스 증후군 아동에 대한 문헌고 찰과 함께 작업치료 평가 및 중재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주제어: 뫼비우스 증후군, 삼킴장애, 선천성 안면마비, 작업치료

Ⅰ. 서 론

선천성 양측 안면 및 안구외전마비는 1880년 Von Graefe에 의하여 처음 보고되었지만(김원주, 선우일남. 박영관과 박기덕, 1991), 하나의 증후군으로 인정된 것은 1888년 독일의 신경학자인 Paul Julius Möbius에 의하여 Münchener Medicinische Wochenschrift (Munich Medical Weekly)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이후였다 (Simonsz, 2008). 뫼비우스 증후군은 안면신경(7번 뇌신 경) 마비, 외전신경(6번 뇌신경) 마비로 인하여 무표정하 고 미소를 짓기가 어려워 "frozen face"라고 불리기도 하 며(Miller, 2007), 그 외 설하신경(12번 뇌신경)과 미주신 경(10번 뇌신경)에도 침범하기도 한다(Meyerson & Foushee, 1978; Verzijl, van der Zwaag, Cruysberg, & Padberg, 2003). 그래서 Henderson(Scarpelli et al., 2008에 인용된)은 "facial diplegia"라고 하였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안검하수, 귀의 변형, 소악증(micrognathia;작 은 턱증), 혀의 부분 퇴화, 안면두부기형, 연구개 및 저작

교신저자: 이택영 (otlty@hanseo.ac.kr)

| 접수일: 2010. 04. 30 | | 심사일: 2010. 05. 24

Occupational Therapy Evaluation and Intervention in Patients With Möbius Syndrome: A Case Report

Ha, Mi-Young*, Ph.D., O.T., S. L. P., Lee, Taek-Young**, Ph.D., O.T.,
Lim, Seong-Or***, Ph.D., O.T.

*Ha's Academy of Physical & Speech/Language Developmen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Occupational Therapy Section, Dankook University Hospital

Möbius syndrome is a rare congenital and non-progressive bilateral or unilateral facial nerve palsy and ocular muscle disorder that occurs in the transverse plane (abducens nerve palsy). It can also be associated with multiple cranial nerve disorders, cardiovascular malformations, intellectual disorders, musculoskeletal deformities, and peripheral neuropathy.

In this case study, a 28-month old male child diagnosed with Möbius syndrome showing vomiting, a sucking disorder, small mandible, and dysphagia was referred to an occupational therapist for developmental evaluation and dysphagia assessment. The child demonstrated ptosis, had difficulty closing his mouth due to an elevated upper lip, and had abnormally low-positioned ears and an expressionless face. After the evaluati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child was developmentally delayed with low scores in mental development index and psychomotor development index based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Additionally, a severe language development delay was indicated based on the sequence language scale for infants. Based on a video fluoroscopy dysphagia evaluation of the child, aspiration was observed in a thin liquid form, and a delayed swallowing reflex was also detected.

Since Möbius syndrome has not yet been presented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the authors reviewed the literature and presented this case study in order to share their evaluation process and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 method for children with this syndrome.

Key words: Congenital oculofacial paralysis, Dysphagia, Möbius syndrome, Occupational therapy